

연예인 뻔 ‘예술·체육인 특례’…편견 탓?

하위문화로 인식해 관련규정 없어
병역미필 한류스타 해외활동 제한
BTS, 손흥민급 국위선양 했는데…
형평성 논란, 어떤 결론 낼지 관심



현행 병역법은 종합국제경기나 예술 경연대회 입상자 등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빌보드 차트 1위’ 등을 통해 ‘예술·체육요원’ 못지않게 ‘국위선양을 한’ 방탄소년단 등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의 형평성 문제부터 제도 재검토 등 다양한 시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연예인의 병역 의무 이행이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반증이다. 그래서 병역법은 연예인을 바라보는 현실의 또 다른 시선이 된다.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관련 규정은 올림픽(3위)과 아시안게임(1위), 국내외 예술경연대회(1~2위)에서 입상한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34개월간 관련 분야 근무·5544시간의 특기활동 봉사활

동을 통해 군 복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문화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연예인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우선 배경으로 꼽힌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전 세계적인 시선을 모은 것은 물론 케이팝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했다는 주관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가 과연 병역특례 적용을 위한 조건과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 논란과 논쟁을 계기로 병역특례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공표

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선이 많다.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인력 확보 등을 내세워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운동선수과 순수예술인들도 적용 대상이 됐다. 한 연예관계자는 “과거 대중문화와 연예인은 하위·저질 문화와 생산자들이라는 편견의 분위기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예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면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시대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현행 병역법과 시행령은 만 25세부터 27세까지 병역미필자에 1회 6개월 이내에서 모두 5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1회 1년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했지만 5월 규정이 바뀌었다. 또 이들이 국외여행 허가를 얻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병역법이 규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한류스타들이 적지 않다는 점

에서도 이들이 현실적으로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국내 무대를 중심으로 해외 활동을 펼치며 간헐적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의 이 같은 오해의 시선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연예인의 군 복무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엄중함에 비해 병역의 의무를 쉽게 기피할 수 없는 상황도 무계를 더한다.

●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 등

과거 톱스타급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들이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탈했던 사례가 심심찮았다. 군 복무로 인한 활동 공백을 우려해 갖은 불법행위 등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벗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비판은 매우 컸다. 더욱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바람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최근, 과거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많은 연예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은 “연예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시기가 되면 정당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해시태그 킷



서현·효연, 귀욤귀욤해

소녀시대 서현(왼쪽)과 효연이 ‘귀요미’ 매력을 뽐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양이로 변신한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다. “몸은 떨어져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인 소중한 내 언니들”이라는 서현의 말처럼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듯하다. MBC 드라마 ‘시간’ 촬영 중인 서현에게 효연이 커피차를 보낸 것이다. 서현은 “바쁘게 직접 와준 효연 언니 사랑해요”라고 고마워한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서현 #효연 #소녀시대 #사랑해요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라디오 대타DJ 얼마받을까? 친한사이 교통비로 ‘통’쳐요

라디오 DJ는 매일 청취자들을 만나지만, 휴가나 사고 등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일이 생긴다. 이때 ‘대타’가 투입된다. 기존 DJ를 대신해 임시로 진행을 맡는 데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임시 DJ의 출연료는 보통 ‘거마비’ 수준으로 지급된다. 라디오는 드라마나 영화보다 출연료가 적어 대타 DJ에게도 많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개 10만 원대이며, 최대로 책정하더라도 1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몸값’ 높은 스타들이 적은 출연료로도 임시 DJ를 마다지 않는 데에는 ‘관제’를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이다. ‘대타’들은 제작진이나 DJ의 부탁, 또는 평소 친분을 이유로 흔쾌히 제안을 수락한다. 또 목소리를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는 라디오의 매력에 빠져 출연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기획사 측에서도 출연료를 놓고 제작진과 조율하는 일이 없다.

MBC FM4U ‘굿모닝FM 김제동입니다’의 김제동이 휴가를 떠나자 브라운아이드걸스 제아가 임시 진행하고 있다. 김종국은 부친상을 당한 지석진을 대신해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를 진행했다. 조정석, 헤리, 변기수 등은 공황장애와 조울증으로 활동을 쉬고 있는 정찬우를 위해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의 김태균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KBS 쿨FM ‘최강희의 볼륨을 높여요’를 진행했던 최강희는 “고정이 아니더라도 스페셜 DJ를 하고 싶다”고 자청하기도 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 임시 DJ도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편집 | 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

1등 향한 ‘상류사회’…겨우 80만명?

일본 AV배우와 재벌 정사신에 초점
스크린 실패…IPTV선 터질지 관심

개봉 2주째 주말에 접어든 ‘상류사회’(감독 변혁·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가 관객 동원 폭은 물론 스크린 수에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월29일 개봉해 5일까지 모은 관객은 약 60만 명. 손익분기점인 20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극장가에서는 80만 명 선에서 상영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류사회’는 1등의 세계로 진입하려는 2등의 욕망을 담은 이야기.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열연을 펼친 수애의 활약,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상류사회의 민낯을 담았지만 개봉 이후 관객의 관심은 온통 일본 AV배우와 재벌회장(윤제문)의 정사 장면에 쏠리고 있다. 의욕을 갖고 참여한 배우나 제작진 모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 ‘문제적 장면’을 향한 반응이 극장 상영 이후 IPTV에서 어떤



윤제문

결과를 만들어낼지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표현 수위가 상당한데다, 실제 이 장면에 출연하는 연기자는 일본의 유명 AV(성인영화) 배우인 하마사키 마오다. 그는 재벌회장이 추구하는 ‘예술행위’에 동참한다.

3분여 동안 진행되는 이 장면은 자칭 예술가를 표방하는 재벌회장의 허위의식을 비틀어 풍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감독의 이런 의도가 관객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분위기다. 의도는 알겠지만, 묘사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이뤄진 탓에 일부 관객 사이에는 혐오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하마사키 마오만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일본 유명 AV배우이자, 국내에서도 팬미팅을 열 정도로 인기가 상당한 그를 둘러싼 호기심이 작동되면서 전혀 다른 측면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롤코’는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어요

<롤러코스터>

‘최신유행프로그램’ 새 이름으로
권혁수·예원 출연…하반기 방송

tvN ‘롤러코스터’가 ‘최신유행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부활한다.

5일 한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최신유행프로그램’은 2018년 버전의 ‘롤러코스터’로 만들어진다. 1539계단을 타기로 하는 XtvN 채널을 통해 하반기 방송 예정이며 연기자 예원, 방송인 권혁수, 개그우먼 이세영 등이 출연한다.

‘최신유행프로그램’은 ‘2018 버전 롤러코스터’라는 설명에 걸맞게 ‘롤러코스터’의 콘셉트를 따른다. 드라마와 코미디프로그램의 풍토를 결합한 독특한 형식을 유지하며, 각 주제에 따라 주어진 내용을 출연자들이 재연하는 방식이다. 내용은 프로그램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유행하는 트

렌드를 반영하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3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제작진은 현실감 높은 에피소드로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프로그램 제목은 다르지만 ‘롤러코스터’를 토대로 5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만큼, 이전보다 더욱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높은 공감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신유행프로그램’의 모태가 된 ‘롤러코스터’는 방영 당시 시즌3까지 제작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2009년에 방송한 시즌1은 다양한 상황 속 남녀의 심리와 행동을, 2012년 시즌2는 한국인의 심리와 행동을 탐구했다. 2013년 시즌3은 ‘힐링’을 주제로 일상에 지친 시청자에게 위로로 전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시즌1에 출연했던 정가은은 ‘롤코’로 불리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현장.jpg

나라, 셔터를 부르는 미소



헬로비너스 나라가 5일 서울 명동 뉴스퀘어에서 열린 한 패션 잡화 브랜드 매장 리뉴얼 오픈이벤트에서 상큼한 미소로 시선을 모았다. 이날 나라가 입은 핑크빛 원피스는 청순한 여성미를 더욱 돋보여줬다. 나라의 이런 모습을 담기 위해 거리의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나라는 현재 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 출연중이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